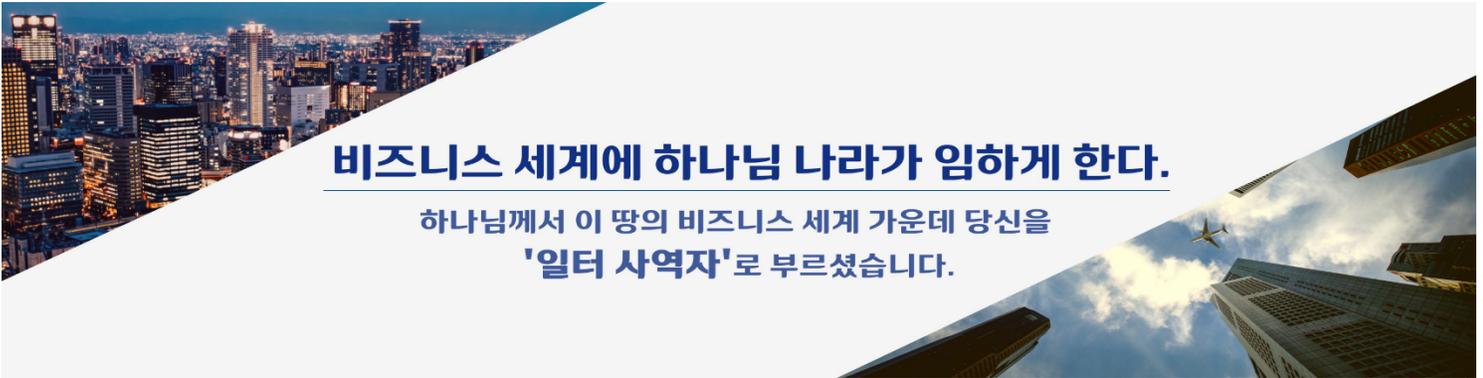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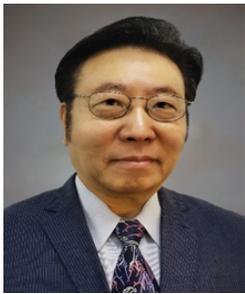
미주한인 CBMC 월간 뉴스레터

NEWSLETTER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당신을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강승태 총회장 신년 메시지

사랑하는 CBMC 가족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 복된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주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의 모든회원들 가정과 일터와 섬기시는 교회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중앙회와 함께 비전스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서부총연합의 CBMC 사역들을 세우기 위하여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CBMC 동역자들을 일하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서부총연합은 CBMC의 비전과 사명을 바탕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 가기를 소망합니다. 신년벽두에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CBMC의 지경을 확장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지회가 탄탄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둘째,** 연합회가 지회장들과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총연이 전체 방향을 잘 잡아야합니다. 이 세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매주 받는 만나 말씀 나누기에 힘쓰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일터에서 솔선수범으로 행함으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총연과 연합회가 지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회는 또 다른 지회를 품고 기도하며 심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인식하고 전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며 중보 기도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부터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남가주 연합회는 가든 그로브 지회 창립과 북가주 연합회는 산타클라라 CBMC 지회 창립준비 모임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세대와 세대간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CBMC 사역도 차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질병과 전쟁등으로 인하여 올 한해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 하시면서 또 욕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 보다는 가법지않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간구함으로 환난을 극복했듯이 이 시대의 우리들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다면 능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독교실업인인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CBMC 비전을 품고, 전도와 양육, 성경적 경영, 리더십 개발을 추구하며 일터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계획하는 귀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은 할지라도 이를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우리는 익히 체험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 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며 순종하는 충성된 일터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주님 능력안에서 강건하시고 형통한 삶이 이어지는 2023년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승태 회장

미주한인 기독교실업인회 서부총연

차례

총회장 신년메세지	1 쪽
토끼 이야기	2 쪽
지회 송년 모임	2 쪽
지회 송년 모임	3 쪽
지회 소식	4 쪽
2023년 주요사역	4 쪽
땅끝 향기-김보순	5 쪽
꽃말 - 톨립	5 쪽
광고 :	6 쪽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제 4차 아시아 CBMC 대회	
CBMC Mission	
총회 및 모임 안내	7 쪽

2023 년 계묘년(癸卯年) 에 알아보는 토끼 이야기

2023 년은 계묘년(癸卯年) 토끼띠 해이다.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기에 '검은 토끼의 해'이기도 하다. 토끼는 동아시아 지역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십이지 문화(시간과 방위에 12 동물을 대응시키는 것)에서 네 번째 동물이다. 토끼는 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조선시대 한시·민화·구비문학 등에서 달과 관련된 토끼가 등장한다. 옛사람들은 토끼가 달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 옛사람들은 달 표면을 보고 연상한 방아 찧는 토끼가 달의 정령·무병장수·장생불사를 상징한다고 믿었다. 사진은 계수나무 밑에서 방아를 찧는 토끼 모습이 새겨진 판. 국립민속박물관.

어린 아이들이 손잡고 부르는 동요 '반달' 속에서는 토끼가 달 속에 방아를 찧고 있는 모습이 묘사된다. 달에 토끼와 계수나무가 산다는 설화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도 있다.

전래동화에서 토끼는 '피쟁이'로 자주 등장한다. '토끼와 호랑이'에서 토끼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뻔하지만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한다.

판소리 '수궁가'와 한글 소설 '별주부전'에도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토끼가 등장한다. 자라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 용왕을 위해 육지로 나가 토끼에게 접근한다. 토끼는 바닷속 용궁으로 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자라의 꾀에 속아 용궁으로 간다. 용왕이 간을 꺼내기 위해 토끼의 배를 가르려고 하자 토끼는 자기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말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 판소리 '수궁가'와 한글 소설 '별주부전'에서도 영민한 토끼는 자신의 간을 원하는 용왕과 자라를 속여 위기를 모면한다. 위 그림은 토끼가 자라의 등을 타고 바닷속 용왕을 만나러 가는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실제로 토끼의 지능은 50으로 호랑이(45), 거북이(20)에 높은 편이다. 토끼는 시력이 좋지 않지만 두 눈이 양옆을 향해 있어 360 도를 모두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각이 넓다. 빛에 대한 감도는 사람보다 8 배 높아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본다. 사람보다 소리에 2 배 민감해 먼 곳의 소리도 잘 듣는다. 천적을 멀리 감지하고 재빨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토끼는 민첩성을 상징했다.

한국 곳곳에는 토끼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2011 년 기준 전국 154 만 여 개 지명 가운데 토끼와 관련된 지명은 158 개에 달한다. 코리아넷뉴스 이지혜 기자 jihlee08@korea.kr

샌프란시스코 지회 송년모임



미서부 기독교실업인회(CBMC) 샌프란시스코 지회(회장 손대운)는 지난 27 일 오가네 식당 이층 별실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백종한 총무의 사회로 시작한 1 부 예배에서 조종애 선교사와 이광용 트라이밸리 부회장이 찬양을 인도하고 최윤정 부회장이 대표기도를 했다. 이상준목사(조이풀교회 담임)는 '노동은 사역입니다(왕상 18:3)' 라는 제목으로 '오바다 선지자처럼 지금의 우리 일터가 바로 사역지'임을 권면했다.

이어 한국 중앙회 김영구 회장의 영상 메시지와 강승태 미서부 총회장과 계용식 북가주 연합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임봉대 SF 지도목사의 만찬 기도후에 이광용 부회장의 진행으로 친교와 풍성한 선물 전달 시간을 가졌으며 손대운 회장은 올 한해를 감사하며 새해 사역을 위하여 합심 기도를 인도하고 김이수목사의 폐회 축도로 행사를 마쳤다.

신승수 고문

그동안 하나님일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금년에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일에 수고하시고 하시는 일에 축복있으 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임봉대 샌프란시스코 지회 지도목사

지난 1 년 동안 모든 분들의 수고로 뜻깊고 즐거웠던 일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셔서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Happy new year!



미서부 기독교실업인회(CBMC) 새크라멘토 지회(회장 최계영)가 지난 29 일 정영희 회원 자택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오광수 목사는 '항상 기뻐하라(살전 5:16- 18)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 목사는 대대로 물려받은 선친이 사용했던 1913 년도 성경책을 선보이며 회원들 가정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차세대에 물려주도록 권면했다. 이에 앞서 이광용 부회장의 찬양 인도와 강승태 총회장의 기도가 있었다. 이윤구 회장의 식 사 기도에 이어 풍성한 만찬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2023 년 새해 일터 사역을 위하여 합심 기도로 마쳤다.

남가주 연합회 부에나팍 지회 - 총무 최순자



CBMC 서부총연 임원님들 !!
주안에서 모두 평안을 기도합니다.

남가주 연합회 부에나팍 지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1 월 5 일 (목) 오후 6 시 부에나팍 시에 있는 "조선옥"에서 신년회 겸 첫 주 만나 미팅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와 성경의 신뢰성" 이란 주제로 안목사님 인도로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16). 아멘 🙏

새해 첫번째 나눔 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세지 는 "성경" 입니다.
서부 총연 임원님들 ! 올 2023 년 한해는 성경말씀으로 무장한 일터와 가정들이 되십시오

God bless you ~ 🙏

이봉우 남가주 연합회 회장 -2022 년 12 월 30 일

아버지 하나님,
2022 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세상 곳곳에 아픔이 많았고
눈물과 탄식이 많았습니다.
통제와 방역으로 인한 사회 경제의 어려움과,
전염병의 공포로 위축된 민심이,



서로를 감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으로
완약함과 패역함의 증상들이
연이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로써 어두운 세상에 속했던 자들은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옵시고,
빛에 속한 교회들은 하나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심판을
우리는 늘 상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시고,
넓은길의 유희를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생명으로 나아가는
좁은길로 가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가올 새 해는 더욱 극심한 재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마지막 그 날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늘 깨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찬송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황선철 전직 총회장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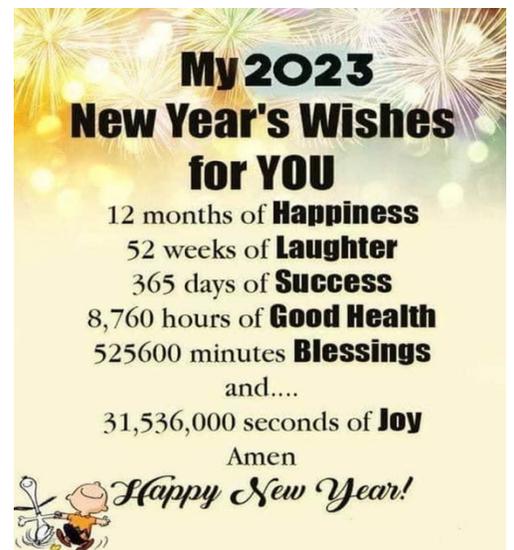
새해부터는 보다 어른다운 어른, 노년을 즐겁습니다. 더욱 낮추고 비우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되겠습니다.



제 1 기 미서부 비전스쿨 수료증 전달식 미서부 기독교실업인회(CBMC)
2022 년 12 월 27 일 오가네 식당 이층 별실

2023 년 주요사역

1. 신년인사회 - 각 연합회
2. 리더십 스쿨 - 3 월중
1 박 2 일로 예정
(일시 장소 추후 공지)
3. 제 2 회 차세대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 -
4 월 3 일(월)
Los Coyotes CC
4. 제 12 차 세계대회 및
제 49 차 한국대회 -
8 월 15 일(화)-18 일(금)
3 박 4 일 일산 킨텍스
5. 제 2 회 CBMC 서부대회 -
10 월 예정
(일시 장소 추후 공지)



땅끝 향기

담을 뛰어넘나이다

김보순

내 고향 제주도는 바람과 돌이 많은 곳이다. 화산 지형이라 돌이 많다. 농사짓는 밭에 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척박하고 농산물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뜻이다. 어릴 적에 어머니를 도와서 밭일을 할 때 참 돌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밭 가운데 있는 돌을 밭 가장자리에 쌓아 놓은 것이 돌담들이다. 다른 사람의 밭과 경계도 담을 쌓아 표시했다. 그 담은 비록 높지 않았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시편 18 편 29 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말씀을 읽으며 고향의 돌담이 생각났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담이 있다. 담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 좌절, 실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한다. 부부 사이의 담, 동료 사이의 담.. 때론 내 안의 장애물이 담이 되기도 한다.

다윗에게도 겹겹이 쌓인 담들이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적들의 침입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자녀의 반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 등의 담들이 있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나를 전율케 한다. 적군을 향하여 달려 나갈 뿐 아니라 담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을 의지 함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담들을 뛰어넘는다고 말한다.

나에게는 어떤 담이 있을까? 밖에 있는 담보다 내 안의 장애물들이 더 많은 것을 본다. 두려움, 불안, 소심함, 용기 부족 등등 여러 담들 앞에서 도전해볼 생각도 못 하고 그 한계 앞에 멈춰버린 것은 아닐까?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 외부환경의 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담, 내 안의 장애물로 인한 담들 앞에서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한다.

꽃말 - 튤립

‘영원한 사랑의 고백’

사랑 고백하면 장미가 떠오르는데, 튤립도 사랑 고백하기에 아주 좋은 꽃인거 같습니다. 다만 노란색 튤립은 '혼자하는 사랑, 헛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튤립 색깔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 빨강색 : 사랑의 고백

♡ 노란색 : 헛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 보라색 : 영원한 사랑,
영원하지 않은 사랑

♡ 분홍색 : 사랑의 시작, 애정,
배려

♡ 흰색 : 과거의 우정, 실연,
추억, 새로운 시작

♡ 망고색 : 수줍은 사랑의 표시,
매혹적인 사랑

♡ 자몽색 : 사랑의 고백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연합회장님, 지회장님과 총무님!
지난 한 달간 지회모임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귀한 사역의 이야기
- 회원 동정 (사업확장, 개업, 조경사)등

귀담아 들겠습니다. 😊

[제 5 차 해외한인 CBMC 대회/
제 4 차 아시아한인 CBMC 대회]

- 일시: 2023 년 2 월 9 일(목)-
11 일(토)
- 장소: 베트남 푸꾸옥 빈펄 리조트
- 사전등록(22/11/30 까지) :
성인\$390(숙소포함)
- 정규등록(22/12/01 부터) :
성인\$440(숙소포함)
중고등/청년\$300(숙소포함)
12 세미만자녀\$100(숙소불포함)
***비행기표 개인 별도 구매**
- 계좌: 하나은행
369-910017-94104
아시아한인기독실업인회
- 문의: 한국 CBMC 중앙사무국
(02-717-0111)



https://cbmc.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23

***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CBMC MISSION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
한국 CBMC 는 우리를 통하여 선포된 CBMC 비전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을 다음 세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CBMC (기독실업인회) 목적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기독실업인들과 전문직업인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마태복음 28 : 18-20, 사도행전 1 : 8)

미주 한인 기독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

2023 주제 :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행 3:6)

목표 :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십 표어 : 100개 지회 (재) 창립 역량강화 일터복음사명

CBMC <Connecting Business & Marketing to Christ> 는 일반적으로 기독실업인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CBMC는 1930년 미국에서 태동했으며, 기독실업인 (사업가)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공동체입니다. 한국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273개 지회, 해외 130개 지회가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한인들의 기독실업인회는 1975년 남가주에서 출발했습니다. 2019년 1월25일 창립된 미주한인 CBMC 서부총회는 2020년 1월 25일 서부총회 명칭을 미주한인기독실업인 총회 (KCBMCUSA), 2022년 10월 18일 미주 한인 기독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로 변경했습니다. 총연은 서북부 연합회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주와 밴쿠버, 하와이), 북가주 연합회, 남가주 연합회 3개 연합회의 각 소속 지회로 구성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CBMC 연합회 지회 모임 안내 : COVID-19 사태로 비대면 ZOOM 화상 /대면 회의 및 기도회

<p>남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이봉우)</p> <p>남가주 지회 (회장 : 이봉우)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코리아타운 지회 (회장 : 오현근)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부에나팍 지회 (회장 : 스티븐 최)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30</p>	<p>가든 그로브 예비 지회 (회장 : 민 김)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북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계용식)</p> <p>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 손대운) 모임 : 매주 정례 (금) / 줌 *시간 : 오전 7:00</p> <p>새크라멘토 지회 (회장 : 최계영)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전 6:30</p>	<p>트라이밸리 지회 (회장 : 박성희) -모임 : 매주 정례(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SF 다운타운지회 (부회장 : 박래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트레이시 예비 지회 (회장 : 허정무) 모임 : 주별 비정례</p>	<p>서북부 연합회 (연합회장 오윤호)</p> <p>시애틀 지회 (회장 : 오윤호)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페더럴웨이 지회 (회장 : 박상규) 모임 : 주별 비정례</p> <p>하와이 지회 (회장 : 윤여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	---	--	---